

## 乳 製 品

張 聖 鍾 常務  
〈韓國乳加工協會 常務〉

### 원료수급조절기구 설립 추진

— 유가공업의 안정적 발전위해 —

#### 1. 현 황

##### 가. 일반현황

한국의 유가공 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낙농 발전 정책과 국민소득 증대에 의한 우유소비 증가에 힘입어 고도성장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역사적으로 미미한 위치에 있던 한국낙농업의 발전은 1962년 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중 축산진흥 5개년 계획이 포함되면서 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1차 5개년계획중 젖소 도입실적은 8,471두였고 2차 5개년계획 기간인 1967년부터 1971년까지는 젖소 도입실적이 30,000두로 계획을 훨씬 초과하는 실적을 이룩했으며 이때부터 낙농업과 유가공업은 발전의 도약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젖소두수의 획기적인 증가에 힘입어 1962년에는 1개소 밖에없던 유처리공장이 1968년에는 30여개소, 1971년에는 45개소로 늘어났고 1980년에는 51개소로 늘어났으며 1987년말로 이들 유가공장 및 유처리장을 업체별로 구분하여 보면 유업체수는 35개소이고 공장수로는 47개이며 연간 유처리능력은 1,163,620톤, 유가공능력은 571,299톤으로서 도합 1,

734,919톤에 이르고 있다.

##### 나. 유제품의 역사

우리나라의 우유 생산역사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나 시유가 상품화 된것은 1937년 7월 현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전신인 경성우유동업조합이 문을 열때 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계속된 소규모의 시유생산은 8·15 해방과 6·25사변 등으로 거의 중단 상태에까지 이르렀으나 1962년 부터 시작된 축산진흥 5개년 계획에 힘입어 급속한 발전을 하게 되었다.

1962년 12월에는 국내 처음으로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정부의 보조와 용자에 힘입어 신규공장을 현재의 중량교에 건설하여 가당연유를 생산하게 되었다.

당시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신규공장이었던 중량교 공장이 가동되기 이전까지 시유는 저온장시간살균법을 사용하여 생산되었는데 중량교 공장이 준공됨으로서 고온 단시간살균법을 사용하게 되어 연속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분유와 기타 유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이 증설되어 1964년에는 국내 최초로 버터를 생산하게 되었다. 1965년 5월에는 서울우유에서 조제분유를 생산하였고 1967년 1월에는 남양유업에서도 조제분유를 생산하게 되었다.

또한 1967년 2월에는 남양유업에서 무당연유를 생산함으로써 계절에 따른 시유 소비의

〈표 1〉 년도별 유가공 공장수 및 처리능력

(단위 : 톤)

연 도	유 처 리 장		유 가 공 장		합 계	
	공 장 수	연 간 능 력	공 장 수	연 간 능 력	공 장 수	연 간 능 력
1962	1	7,920			1	7,920
1965	16	15,140	3	9,143	19	24,283
1968	25	19,512	6	31,930	30	51,442
1970	36	34,230	10	38,350	38	72,580
1975	43	164,102	13	127,976	47	292,078
1980	46	298,754	21	303,637	51	802,391
1983	41	725,356	20	386,995	45	1,112,351
1984	43	727,133	25	396,903	48	1,124,036
1985	41	814,501	26	470,047	47	1,284,548
1986	41	875,111	29	524,081	48	1,399,192
1987	40	1,163,620	32	571,299	47	1,734,919

변동에 관계없이 낙농가가 안심하고 원유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1968년 2월에는 서울우유에서 초코우유가 가공시유로 처음 선을 보이게 되었다.

1969년말 부터는 전지분유를 생산케 되었고 1971년에는 한국야쿠르트에서 유산균발효유(액상)를 생산하므로써 유산균발효유의 원료인 탈지분유가 이때부터 생산되게 되었다.

그리고 1972년 3월부터는 남양유업에서 국내 처음으로 멸균유를 생산하였는데 당시의 멸균유는 삼각형의 테트라팩으로 포장 생산되었으나 원유의 질이 좋지못해 생산 및 판매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

국내 치즈가 처음 생산된 것은 68년부터 임실에서 아일랜드 신부가 산양젖을 가지고 소량씩 생산한 것이 시초이며 그 이후 서울우유에서 72년 6월에 구다타입의 자연치즈를 생산하였고 74년 5월에 삼양식품에서 가공치즈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1977년 6월에는 서울우유에서 푸딩을 생산 판매하였으나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지 못하여

몇개월 판매하다가 생산을 중지하였고 1981년 1월부터 삼양식품에서 호상요구르트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84년 7월에는 서울우유에서 유당소화효소가 약하여 우유를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유당 분해우유를 시판하기 시작하였고 1987년 1월부터 해태유업에서 유지방을 기피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저지방우유를 생산 시판중에 있다.

이외에도 초코렛우유로 출발한 가공유는 딸기우유, 커피우유, 바나나우유 등으로 종류가 다양해졌으며 또한 전지가공유와 저지방가공유, 탈지가공유 등으로 구분되어 종류가 다양해졌다.

#### 다. 유제품의 수급

1962년에 서울우유에서 유가공공장을 세워 가당연유를 생산하기 이전까지는 많은 량의 우유가 자체소비라는 명목으로 송아지등의 사료용으로나 자가소비용으로 처리되었으며 가공공장이 생긴 이후에도 상당기간 일부의 원유를

〈표 2〉 우리나라 유제품 생산의 역사

최초생산 년 월	업 체 명	생 산 제 품
1937. 7	서울 우유	백색시유
1962. 12	서울 우유	가당연유
1964. 7	서울 우유	가염버터
1965. 5	서울 우유	조제분유
1967. 2	남양유업	무당연유
1968. 2	서울 우유	가공유(초코우유)
1969. 6	서울 우유	유제품아이스크림
1969. 12	서울 우유	전지분유
1971. 6	서울 우유	탈지분유
1971. 8	한국야쿠르트	엑상요구르트
1972. 3	남양유업	멸균우유
1972. 6	서울 우유	자연치즈
1974. 5	삼양식품	가공치즈
1977. 6	서울 우유	푸딩
1981. 1	삼양식품	호상요구르트
1984. 7	서울 우유	유당분해우유
1987. 1	해태유업	저지방우유

폐기하는 사례가 많았고 1965년 이후에야 어느 정도 낙농가들이 안심하고 납유하는 단계에 이르렀었다.

1965년 이후 1970년까지 계절적으로는 수급의 불균형이 있었어도 연간으로 볼 때에는 별차질 없이 수급의 균형을 이루어 왔었다.

그러나 1970년 8월에 대장균과동이 일어나 일주일 이상 매일 신문에서 대장균 문제를 거론하게 되자, 소비량이 50%나 감소하게 되어 낙농 및 유가공업이 큰 시련을 겪었다.

다행히 서울지역의 국민학교 우유급식이 2학기부터 실시되어 존폐의 위기에 있던 낙농유가공업이 위기를 모면하였다.

그러나 1972년 1월 비수기를 맞이하여 유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모유업체에서 갑자기 수유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수유거부 사태가 일

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연쇄반응을 일으켜 전국적인 수유파동을 불러와 제2의 큰 시련을 겪게 되어 일부 유업체에서는 우유를 하천에 버리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다행히 낙농가와 유업체와 정부가 합심하여 우유소비운동을 벌인 결과 3월이후 시유의 판매량이 급신장하여 1973년 이후에는 원유부족 사태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이후 1979년 상반기까지 매년 성수기에는 우유가 모자라는 호황을 누렸고, 1979년 상반기에는 원유부족으로 탈지분유를 1,000톤 수입하였다.

그러나 1979년 하반기부터 밀어닥친 국제 석유가격 인상에 따른 국내경기의 침체는 우유소비의 격감을 가져와 1980년 초에는 전지분유가 8,000톤이나 재고로 쌓이는 등 또한번 수급상의 불균형으로 고통을 겪었다.

이때에도 1980년 하반기부터 학교급식의 재개, 정부의 재고금융 방출, 정부와 유업체의 공동홍보등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1981년에는 쌓였던 재고가 소진되고 오히려 공급의 부족현상이 생기게 되어 1982년도에는 또다시 전지분유 1,500톤을 수입하고 1983년도에도 상반기에는 전지분유 500톤을 수입하였고 1983년 8월의 무니위로 인하여 원유생산량이 격감하게 되자 9월부터 아이스크림 및 식품업계에 분유 부족현상이 심각하여 10월중 전지분유 500톤을 수입, 공급하였고 카제인 제조용으로 수입된 탈지분유 100톤을 수급조절용으로 전환사용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부족현상은 1984년도에 3,500톤(전지분유 2,700톤, 탈지분유 800톤)의 분유를 수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98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불경기과 1984년말 부터 1985년초에 발생한 식품에 독극물첨가 사건은 우유의 소비증가율을 둔화시켜 1984년도 생산증가율 18%에 비하여 소비증가율을 14.4%에 머물게 하였고 연말재고는 전지, 탈지분유를 합하여 5,600톤 정도(정부보유분 1,105톤 포함)가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1985

년도까지 계속된 반면 생산은 경제성이 없는 저능력우의 도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985년에는 전년대비 19.7%나 신장하였다.

이에따라 1985년도에는 소비확대를 위하여 소포장 우유의 용량증량(1985년 7월부터 180ml에서 200ml로 용량을 증가시킬), 전지분유수출(2,030톤), 송아지대용유 생산업체에 전지분유 2,297톤(정부 보유분 1차 442톤, 2차 462톤, 유업체 보유분 1,393톤)공급, 학교급식확대, 공동홍보실시, 원유수매자금 200억원 융자, 유제품수입억제 등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1985년 소비증가율은 이 모든 것을 합쳐어도 19.8%밖에 증가하지 못하였고 이중 수출과 대용유업체 공급분을 제외하면 순수 소비증가율은 15.1% 밖에 되지 않아 1985년말 분유재고는 6,700톤에 달하였다.

그러나 원유의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여 드디어 1985년에는 생산량이 백만톤을 넘어서게 되었고 낙농유가공업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1986년도에 들어와서는 송아지 모유먹이기 운동과 저능력우 도태운동, 수입 유제품의 수입억제정책, 식품 및 모조분유용으로 수입되는 유당의 한도량을 억제시키고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있던 우유단백질의 일종인 카제인을 1986년 7월부터 수입감시품목화 하였고 송아지 대용유 원료인 탈지분유(1984년 기준 3,500톤)의 전량 수입중지등이 효과를 거두었고 수요측면에서는 유제품 가격저널과 특별소비세 면제(1986년 7월부터 아이스크림의 특별소비세면제) 공동홍보, 소포장용량증량에 따른 소비증대(1986년 상반기 소비증가량 약3만2천톤), 학교급식

〈표 3〉 연도별 원유수급 현황

(단위 : 톤)

연도	이월량	생 산			소 비			재 고
		생 산	수 입	계	수출 및 기타	국내소비	계	
79	3,148	380,730	12,500	393,230		374,410	374,410	21,968
	증가율		(탈지1,000)					
80	21,968	452,327		452,327		411,809	411,809	62,486
	증가율	18.8%				10.0%		
81	62,486	512,875		512,875		557,722	557,722	17,639
	증가율	13.4%				35.4%		
82	14,655	576,236	13,500	589,736		592,720	592,720	14,655
	증가율	12.4%	(전지1,500)	15.0%		6.3%		
83	14,655	712,206	10,200	722,406		728,575	728,575	8,486
	증가율	23.6%	(전지1,000 탈지 100)	22.5%		22.9%		
84	8,486	840,543	33,900	874,443		833,504	833,504	49,425
	증가율	18.0%	(전지2,700 탈지 800)	21.0%		14.4%		분유환산 (5,600)
85	49,425	1,005,811		1,005,811	수출 18,270 (전지 2,030)	959,742	998,685	56,551
	증가율	19.7%		15.0%	대용유 20,673 (전지 2,297)	15.1%	19.8%	분유환산 (6,700)
86	56,551	1,154,460		1,154,460		1,162,400	1,162,400	48,611
	증가율	14.8%				21.1%	16.4%	분유환산 (5,500)
87	62,046	1,413,126		1,413,126		1,424,765	1,424,765	50,407
	증가율	22.4%				22.6%		

(주) 86년도까지는 도별 집계수치이고, 87년도는 컴퓨터에 의한 집계이므로 전년대비증가율은 정확치 않음.

확대등이 소비증가의 주요원인이 되어 1986년의 원유생산 증가율은 14.8% 증가한데 비하여 소비증가율은 16.4% 증가하였고(수출 및 대용유 원료용 포함시), 순수한 국내소비증가율은 21.1%나 증가하여 1986년말 재고는 5,500톤 수준으로 1985년말 재고보다 1,200톤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86년 12월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한 원유의 생산증가는 87년도 상반기 동안 계속됨으로서 유업계는 분유재고 체화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유대를 연불하는 곳이 있었고 원유대 지불대신 유대의 일부를 분유로 지급하는 업체도 있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이 3년이상에 걸쳐 계속되자 이는 소비증가는 물론 높은 생산증가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대두 되었으며 몇몇 학자들과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이점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정부당국은 7월11일자로 원유의 생산조절 시행법안을 행정예고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행정예고는 치즈합작 공장설립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상승으로 낙농가들의 전면 거부에 부딪히게되자 급기야 8월 14일부로 전면 백지화 되었다.

87년도에 소비측면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치즈의 급격한 신장을 들 수 있겠다. 87년 4월부터 해태유업에서 슬라이스 치즈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로 치즈의 소비는 암시장의 수요를 대체한 것도 있겠지만 전년대비 2배이상 신장하였다는 것과 버터의 부족현상이 하반기에 극심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87년 부터 88년에 이르러 가장 활발히 거론된 문제는 우유수급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서 우유의 수급조절을 전담 할 수 있는 수급조절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88년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농수산부의 지시에 의하여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낙농, 유가공, 학계, 정부 소비

자단체를 망라한 낙농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우유수급조절기구 설립과 이에 따른 집유일원화 작업이 구체적으로 토의되고 있으며 89년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 2. 전 망

### 가. 수급전망

우리나라의 연도별 원유납유량을 검토해보면 1963년부터 1973년까지의 10년간은 연평균 증가율이 40%를 상회하고 있으나 1973년부터 1983년까지의 10년간은 연평균 21.6%가 증가됨에 따라 증가비율은 상대적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납유량중 시유용과 가공유의 사용비율을 볼 때 1962년말 이전에는 가공품이 생산되지 않아 시유용 비율이 100%였지만 1962년부터 연유가 생산되자 시유의 비율이 매년 감소되었고 특히 1965년 부터 조제분유가 생산되면서부터는 시유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 1969년에는 시유용 원유의 비율이 40.7%까지 내려 갔었다.

그러나 1970년부터는 서울지역에 학교급식이 실시되었고 1972년의 우유과동 이후에는 시유판매에 주력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한 결과 시유의 비율은 다시 올라가 1981년 이후는 시유의 원유사용 비율이 65~70%선, 86년 이후에는 75%선을 넘어서서 시유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도 검토한 바와 같이 우유의 생산 및 소비는 매년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매년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과거의 소비량을 토대로 한 앞으로의 수요전망을 보면 1990년대의 소비증가율은 연 10~13%선으로 발표되고 있다.

반면 원유의 생산증가율은 젖소의 도입이 없다 하더라도 과감한 저능력우의 도태가 없는 한 15%내외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장

〈표 4〉 원유의 연도별 처리가공현황

(단위 : 톤)

연도	남유량	시유용	가공용	시유비율(%)
1963	3,190	2,228	962	69.8
1965	8,851	6,425	2,426	72.5
1967	17,321	9,899	7,422	57.2
1969	32,439	13,032	19,407	40.7
1971	62,604	27,100	34,164	43.7
1973	101,819	55,671	46,148	54.7
1974	124,745	73,913	50,832	59.3
1975	160,338	116,813	43,525	72.8
1976	197,334	131,919	65,415	66.9
1977	260,574	162,177	98,397	62.2
1978	320,867	201,681	119,186	62.9
1979	380,730	228,827	151,903	60.1
1980	452,327	258,587	193,740	57.2
1981	512,875	341,336	171,539	66.6
1982	576,236	400,593	175,643	69.5
1983	712,205	496,593	215,677	69.7
1984	840,543	588,396	252,147	70.0
1985	1,005,811	714,370	291,441	71.0
1986	1,154,460	884,249	269,981	76.6
1987	1,413,126	1,065,189	347,937	75.4

※ 자료 : 낙농관계 자료

기적인 안목으로 사전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만성적인 공급과잉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원유의 과잉현상을 주기별로 파악해 본다면 1962년도에 연유공장을 설립한 이후 1972년초에 우유과동이 있었고 그이후는 1979년 하반기, 그이후는 1984년 하반기에 우유과동이 있었던바 그 주기는 10년, 7년, 5년으로 그 주기가 짧아져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여야 하며 또한 그에 대한 대책도 초기에는 한두가지의 대책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으나 84년 이후는 모든 대책을 동원하였어도 분유재고 과잉현상이 3년이상을 지속하였다는 것은 앞으로 우유의 수급문제가 정부주도하에 정책적 지원만으로는 한계점이 이르렀다는 것을 뜻하며 우유의

수급문제는 정부, 유업계, 낙농업계가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한 점점 문제해결이 어려워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 발전방향

우리나라의 1인당 우유소비량은 외국에 비해 극히 적은 편이며 우리나라와 식습관이 비슷한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일본의 1985년도 1인당 연간 우유소비량 67.1kg에 비하여 1987년도 1인당 연간 우유소비량은 33.9kg으로 약 2배이상의 차이가 나며(표 5 참조) 국민소득에 따른 소비량을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1984년도 1인당 GNP 2,000\$ 수준과 거의 같은 시기인 1970년도의 일본의 1인당 소비량은 50.1kg으로서 20.5kg인 우리나라의 약 2.5배를 소비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우유소비 증가율은 결코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몇몇 기관이 1990년대의 한국인 우유 소비전망을 예측한 결과를 보면 다음〈표 6〉과 같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현재 소비를 저해하고 있는 제요인을 제거하는 방법,

둘째, 제도적으로 소비확대를 추진하는 방법,

셋째, 원유의 수급조절기구를 설치하여 원유 수급안정에 대한 낙농유가공 발전을 기하는 방법이 있겠다.

#### 1) 유제품 생산소비의 저해요인

첫째 우리나라는 낙농유가공업의 역사가 일천하여 산업기반이 약할뿐만 아니라 대외 경쟁력도 약하여 유제품이 수입자유화될 경우 낙농 및 유가공업은 존재의 기로에 서게된다.

그러나 최근의 정세는 대미무역 역조에 따른 농축산물 개방압력으로 언제 유제품이 수입개방될 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농민들간에 팽배되어 있어 안정적 낙농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표 5〉 연도별 우유소비현황

연도	우유소비량 (톤)	총인구 (천명)	1인당GNP (S)	1인당소비량 (kg)
1962	2,647	26,513	87	0.10
1963	4,512	27,262	100	0.17
1964	6,988	27,984	103	0.19
1965	10,474	28,705	105	0.30
1966	13,914	29,436	125	0.42
1967	18,762	30,131	142	0.60
1968	24,034	30,838	169	0.72
1969	35,037	31,554	210	1.03
1970	49,688	32,241	248	1.43
1971	62,184	32,883	285	1.85
1972	79,852	33,505	316	2.50
1973	104,082	34,103	396	3.20
1974	126,901	34,692	535	3.61
1975	162,435	35,281	591	4.58
1976	198,892	35,860	800	5.55
1977	254,245	36,436	1,028	6.98
1978	325,867	37,019	1,406	8.80
1979	374,410	37,355	1,662	10.02
1980	411,809	37,449	1,589	11.00
1981	557,722	38,723	1,719	14.40
1982	592,720	39,331	1,773	15.07
1983	728,575	39,951	1,914	18.25
1984	833,504	40,578	2,044	20.54
1985	959,742	41,209	2,047	23.29
1986	1,155,830	41,569	2,271	27.81
1987	1,424,765	42,082	2,813	33.9

※ 자료 : 낙농관계 자료

둘째로 1980년 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우유급식은 우유소비저변확대에 기여한바가 크기는 하나 우유급식이 학교장 재량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급식확대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세번째로는 유산균발효유, 가공유, 버터, 치즈, 아이스크림 등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어 유제품소비확대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네번째 유산균음료, 모조분유 등의 유사유제품의 범람은 유제품 소비의 저해요인일뿐만 아니라 유제품 소비를 감소시키거나 나아가서 낙농기반을 붕괴할 우려까지 있는 것이다.

## 2) 우유소비 확대방안

우유소비확대방안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우유소비저변확대를 기할 수 있는 학교우유급식의 확대를 들 수 있으나 현행제도로는 국민학교의 우유급식확대가 거의 한계점에 다달았으므로 전체학생에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의 의무화와 국민학생들에게는 정부보조하에 급식방안이 강구되어야하며

둘째로는 공공홍보의 확대를 들 수 있겠다.

1984년이후 한국유가공협회에서는 매년 3~5억원의 자금을 거출하여 소비자들에게 우유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공동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예산 규모가 너무나 빈약하므로 대폭확대 되어야 할뿐아니라 자조금제도 실시에 의한 농민들이 참여하는 공동홍보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유제품의 국제경쟁력강화를 들 수 있겠다.

수입자유화의 파도는 언제 유제품에도 밀어닥칠지 모르는 현실하에서 우리나라 유제품가격은 국제가격의 2~3배나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바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유제품의 주원료인 원유의 가격이 낮아져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사료 등 원자재에 대한 세제가 재검토 되어야 하겠고, 도시근교낙농의 탈피, 경영기술의 향상, 사육규모의 확대, 젖소산유능력향상, 원유품질개선, 산지초지의 개발 및 활용등을 통한 생산비의 절감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유가공업계에서는 최신기술의 도입, 과감한 연구개발에의 투자, 품질관리향상, 시유편중의 소비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제품의 다양화, 유통구조 개선을 통하여 소비자가격을 낮추므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소비

확대를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원유품질개선을 위해서는 유지방울에 의해서만 지급되고있는 가격차등제를 세균수, 체세포수, 유단백함량에 따른 차등가격제를 실시하므로써 원유의 품질을 개선하여야 하겠다.

### 다 우유수급조절기구의 설립

낙농유가공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저장성이 극히 적은 우유의 수급을 안정시키는것이 지름길이므로 우유의 수급을 여하히 조정해 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바와같이 우유체화 현상의 주기가 가속화되어 정부의 지원정책 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고 소비증가율은 점점 둔화되고 있으며 낙농가와 유업체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있는 이때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우유의 수급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유의 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수급조절기구를 설립하되 이 기구는 낙농유가공에 관련되는 1차, 2차, 3차산업을 종합조정하는 법정 비영리의 독립기구로서 산업(낙농, 유가공)과 정부, 산업 각 부문간의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중립적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

다.

이 기구는 정책결정을 하는 이사회와 정책을 수행하는 집행부를 가지고 이사회는 낙농가, 학계, 유업체, 정부 소비자대표가 참여토록 함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공히 보호하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기구의 업무는 집유일원화, 검사, 원유배분, 원유가격결정, 유제품의 수출입, 유제품의 구매, 비축, 방출업무, 낙농지도, 필요시 계획생산제도의 도입, 안정기금의 운영 등의 업무를 전담하므로써 명실상부하게 이 기구를 통하여 낙농 및 유가공업의 안정적 발전을 기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다.

이상으로 우리나라 유가공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과 방향정립을 위한 몇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이 지 어려움은 앞으로 유가공업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지나온 과거의 수급불균형의 원인과 또한 소비확대를 위해 실시되었던 대책들을 뒤돌아 보는 것은 방향정립을 위하여 뜻있는 일이라 하겠다.

여기에 제시한 몇가지 방안도 이러한 과거의 문제점들을 토대로 제시된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 ANUGA-세계식품 박람회

- 서독Köln Messe, '89. 10. 14~10. 19까지 -



ANUGA-World Food Market 가 1989년 10. 14부터  
10월19일까지 서독 켈른국제박람회장에서 개최된다.  
(문의처 : 한독상공회 776-1546)